2011년 4월 1일(금) 오전 10시

청어람 소강당

- **주관** _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주최** _ 한기총 해체를 위한 기독인 네트워크

행사 순서

시간	프로그램	진행 및 강연자
10:00-10:20	환영과 인사	**남오성** 사무국장 (교회개혁실천연대)
	인 사 말	**이동원** 이사장 (기윤실)
10:20-10:35	기조발제	**손봉호** 석좌교수 (고신대학교)
10:35-10:50	지정토론 1	**조성돈** 본부장 (기윤실 교회신뢰운동본부)
10:50-11:05	지정토론 2	**정운형** 집행위원장 (교회개혁실천연대)
11:05-11:20	지정토론 3	**김형국** 대표목사 (나들목교회)
11:20-12:00	질의응답	

목차

▌한기총 해체를 위한 기독인 네트워크 소개 및 향후 활동계획 04

▌기조발제

한기총은 해체돼야 합니다. 06

손봉호 석좌교수 _ 고신대학교

▌지정토론

① 도덕윤리적 측면에서 : **우리 양심에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09

조성돈 본부장 _ 기윤실 교회신뢰운동본부, 실천신대원 목회사회학 교수

② 교회개혁적 측면에서 : **한기총, 왜 리모델링이 아닌 해체인가?** 12

정운형 집행위원장 _ 교회개혁실천연대

③ 사회선교적 측면에서 : **한기총 해체와 그 너머를 향해...** 15

김형국 대표목사 _ 나들목교회

▌한기총 해체운동 관련 자료 모음 18

한기총 사태에 대한 질의서 / 한기총 해체 촉구 성명서

▌참고자료 20

한기총 사태 경과 / 아고라·페이스북·트위터 서명 참여자 의견 모음
부산토론회(4/4월), 대구토론회(4/5화) 안내

한기총 해체를 위한 기독인 네트워크

● 설립경과

2009. 12. 28. <한기총 개혁을 위한 기독인 네트워크>로 시작.
2011. 3. 14. <한기총 해체를 위한 기독인 네트워크>로 명칭 변경.

● 참여단체

공의정치실천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개혁지원센터, 교회2.0목회자운동(준), 개혁교회네트워크,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도시공동체연구소, 성서한국, 새벽이슬, 생명평화연대, 정의평화를위한기독인연대,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평화누리, 학생신앙운동(SFC), 희년함께(가나다순, 총 16개 단체)

● 활동내용

1. 기도회 개최

- 제목 : 한기총 개혁을 여망하는 기독시민 공동기도회
- 일시 : 2009년 12월 29일(화) 오후 2시
- 장소 : 한국기독교연합회관(한기총) 앞

2. 토론회 개최

① 1차 : "한기총의 신학적·역사적 실체를 묻다"

- 일시/장소 : 2009년 12월 28일(월) 오후 7시, 명동 청어람
- 발제1 : 정치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한기총 - 백종국 교수(경상대학교)
- 발제2 : 성경적 관점에서 본 한기총 - 신현우 교수(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② 2차 : "한기총과 한국교회"

- 일시/장소 : 2010년 4월 13일(화) 오후 7시, 명동 교회다움
- 발제1 : 예언자들의 거짓 종교비판을 통해 본 오늘의 기독교 - 김경호 목사(들꽃향린교회)
- 발제2 : 누가 한기총에게 돌을 던지랴 - 김지방 기자(국민일보, "정치교회" 저자)

3. 성명 및 서한 발표

- 2009. 12. 28.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드리는 공개서한"
- 2010. 5. 28. "한기총의 '4대강 사업' 지지 성명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한다"
- 2010. 12. 20. "한기총, 죽음·증오·절망의 길로 나아갔다"
- 2011. 3. 3. "한기총 사태에 대한 대책 질의서"
- 2011. 3. 16. "한기총 해체를 촉구한다"

● 향후 활동계획

1. 한기총 해체 촉구 서명운동

- 아고라, 페이스북, 트위터를 이용 한기총 해체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진행중)
- 한기총 해체를 촉구하는 오피니언 리더 100인 선언(4월 중)

2. 한기총 가입 교단/단체 탈퇴 촉구 서명운동

- 현재 한기총에 가입되어 있는 66개 교단, 19개 단체에 한기총 탈퇴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온/오프라인에서 전개
- 가입단체 중 "월드비전"이 공식탈퇴의사를 밝힘.(3월31일 현재)
- 교회/노회/지방회가 한기총 탈퇴 청원을 결의하고, 교단/단체가 탈퇴를 결의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운동 전개
- 교단 및 단체 외에 개인 전문인 자격(예 : 상임위원장, 법률고문 등)으로 한기총에 참여하는 목회자/전문인들에게 한기총 탈퇴를 요청

3. 토론회 개최

① 한기총 왜 해체해야 하는가 연속토론회

- 서울토론회 : 2011년 4월 1일(금) 오전10시 / 명동 청어람
- 부산토론회 : 2011년 4월 4일(월) 오후7시30분 / 부산중앙교회
- 대구토론회 : 2011년 4월 5일(화) 오후7시 / 경북대 백호관

② 한기총 왜 해체해야 하는가 연속토론회 타 지역으로 확대 예정

한기총은 해체돼야 합니다

손 봉 호 | 고신대학교 석좌교수

※ 본 기사는 시사저널 1114호 특집 "한국 개신교, 어디로 가시나이까"의 기사내용 중 일부를 시사저널의 허락을 받아 전재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 개신교 역사상 가장 타락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끄는 손봉호 명예교수 인터뷰 "한기총 개혁은 불가능…직접 해체 운동 나서겠다"

[1114호] 2011년 02월 23일 (수) 안성모 asm@sisapress.com

한국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는 교계 원로의 평가는 냉혹했다. 지난 2월17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만난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72)는 "교회가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 성경의 가르침과 너무나 어긋난다. 개신교 역사상 지금의 한국 교회만큼 타락한 교회는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최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돈 선거' 파문을 지켜보면서는 "창피하고 화가 난다"라고 말했다.

손교수는 "한기총은 개혁이 불가능하다"라고 진단한 후 "해체 운동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목사 상당수가 독재자이다. 견제와 비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철학회 회장, 동덕여대 총장을 역임한 손교수는 1990년대 초부터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을 이끌어왔다. 그동안 개신교인의 윤리 문제에 대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은 대표적인 개신교계 인사이다.

Q. 한기총의 금권 선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나?

과거에도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다. 그때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밝혀진 만큼 행동에 나서야 한다. 한기총은 해체되어야 한다.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직접 나서서 해체 운동을 하겠다. 우선 어느 교단이 양심적인가 지켜보려고 한다. 제대로 된 교단이라면 한기총에서 탈퇴해야 한다. 그런 후 한기총에 스스로 해체하라고 요청할 것이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도 해체하지 않으면 서명 운동을 펼칠 생각이다. 최근 활동가 모임에서 한기총을 해체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한기총은 개신교인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개신교계를 전혀 대변하지 못한다.

Q. 교계 지도자의 명예욕을 지적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문제인가?

한국 개신교는 기복 신앙이 강하다. 그런데 복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복이라고 여긴다. 그렇다 보니 목사가 명예에 집착하게 된다. 더구나 한국 정치권은 개신교계에 약하다. 개신교 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하는 등 굉장한 대우를 해준다. 이것이 한국 교회 타락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교계를 대표하는 자리가 왜 필요하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는 한기총처럼 교계 전체를 대표하려는 기관이 없다. 불교도 한목소리를 내고, 천주교도 한목소리를 내는데, 개신교만 한목소리를 못 내면 손해를 보지 않느냐고 하는데, 손해를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신교는 핍박을 받아야 순수해진다. 지금처럼 특권을 누리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다.

Q.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정치권과의 관계 정립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많은 분들이 앞으로 대통령은 개신교인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 개인의 잘잘못과 관계없이 우리 정치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서 정치 권력자가 개신교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종교적 권위와 정치적 권위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교회에 아무런 이익이 안 된다. 돈 문제는 교계에서 민감한 사안 가운데 하나인데, 교회가 너무 물신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돈과 하느님은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 돈 잘 버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 되어버렸다.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돈을 버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성경의 가르침과 너무 어긋난다. 예수님은 철저히 가난했고, 사도들도 다 가난했다.

Q. 장로를 비롯한 교인들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나?

돈을 많이 연보(헌금)하는 사람이 훌륭한 교인이고, 장로가 되려면 연보를 얼마 이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철저히 비개신교적이다. 그렇게 해서 장로가 된다면 교인들의 대표성을 지닐 수 있겠나. 또 장로로서 존경받고 권위가 서겠나. 교인들은 장로를 뽑아놓고 존경하지도 않고, 장로는 온갖 말도 안 되는 장난을 쳐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뿐이다.

Q. 아직도 이른바 '매관매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한국 개신교는 내가 아는 한 가장 타락한 교회이다. 개신교 역사상 지금의 한국 교회만큼 타락한 교회는 없었다.

Q. 개신교에 대한 신뢰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신뢰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성경대로 살면 신뢰도 높아진다. 우선 정직해야 한다. 거짓말을 안 해야 한다. 과장하지 말고 솔직해야 한다. 또 사치하지 말고 검소해야 한다. 교회가 휘황찬란할 필요가 있나? 가난한 이들이 들어와도 마음에 부담을 안 갖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서 교회의 돈을 사회 봉사에 쓰면 왜 신뢰를 못 받겠나. 너무 간단한 것을 지금 못하고 있다.

Q. 일부 목사들로 인해 교회가 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는데.

신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자격 없는 목사들로 인해 하급 종교가 되었다. 교양 수준이 형편없는 목사가 많다. 절에 가서 땅 밟기를 하지 않나, 고함을 지르지 않나.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상당수 목사가 독재자이다. 잘못에 대해 견제와 비판을 받지 않는다. 교인들이 진정 목사를 사랑한다면 견제하고 비판해야 한다. 미리 그랬다면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곪지 않도록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다. 성문제도 목사가 너무 절대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생긴다.

Q. 존경받는 목사도 많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엉터리들에 대한 미움이 더 크다. 그분들의 고결함이 도매급으로 상처를 입으니까 그렇다.

Q.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 자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자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평신도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 교회가 완전히 몰락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이 힘을 합쳐서 목사들에게 압력을 넣어야 한다. 교인들이 대개 한탄만 하지 실제 행동으로 잘 나서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서로 쳐다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Q. 교회 내의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면 위축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많이 위축되어야 한다. 위축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잘못하면 욕을 먹어야 한다. 한국 교회가 잘못을 숨겨놓을 위치에 있는가. 개신교는 현재 막강한 세력이다. 그런 집단이 우리끼리 보호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정말 핍박받는 소수라면 그런 것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장로인 현실에서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무책임하다.

Q. 앞으로 한국 교회는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가?

많은 교회에서 은혜받고 구원받는 것만 강조하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강조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진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논리적 모순이나 혼돈을 가져서는 안 된다. 윤리적인 사람이 반드시 개신교인은 아니다. 하지만 개신교인은 반드시 윤리적이어야 한다. 또 하나 많이들 착각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라는 말씀이다. 물론 나의 원수는 용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내 이웃의 원수를 용서할 권한은 없다. 오히려 분노해야 한다. 나의 원수와 내 이웃의 원수를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

도덕윤리적 측면에서 : 우리 양심에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조 성 돈 | 기윤실 교회신뢰운동본부장, 실천신대원 목회사회학 교수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기총이 흔들린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라는 이름으로 2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교회의 대표기관이었던 한기총이 이제 해체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한경직 목사라는 한국교회의 거목에 의해서 발기되었다는 이 단체가 오늘날 각종 루머에 휩쓸리다가 한국교회를 대표하기는커녕 한국교회를 욕 먹이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교회의 대표적 양심인 손봉호 장로에 의해서 해체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이다.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진 이야기이니 숨길 것도 없다. 전임회장이었던 이광선 목사가 자신도 돈을 써서 겨우 회장이 되었고, 자신의 후임으로 회장이 된, 물론 이광선 목사 입장에서 아직 후임이라고 할 수 없지만, 길자연 목사도 돈을 써서 회장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 길자연 목사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목사들이, 또 그 돈을 돌렸다는 목사가 양심선언을 하고 있다. 앞뒤를 살펴보건 데 어떤 형태로든 돈이 오간 사실은 확실한 것 같다.

이러한 기사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가슴 아파하고, 동시에 분노에 휩싸인다. 그간 한기총 회장이 되려면 큰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다. 어떤 자리에서는 투표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고, 그들이 얼마를 주는 것이 공식가인데 합하면 20억은 있어야 당선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정말 '설마'했다. 20억이라니. 그것이 목사가 만들 수 있는 돈이기나 하고, 혹시 그것이 교회에서 나온 돈이라면 어떻게 그것이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상상이 안 갔기 때문이다. 그런데 양심선언의 내용을 들어보니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다. 어디서 돈 문제를 일으킨 목사의 이야기를 들으니 교회 돈으로 100억의 펀드를 굴렸다니 20억이야 문제나 되겠는가. 혹 정해진 액수가 그런 것이고 확실한 당선을 위해서 더 큰 돈을 들였을지도 모른다. 남들도 다 계산하는 그 정도의 돈을 나도 들여서 확실히 당선될 수 있다고 하겠는가.

이광선 목사 이전에 두 번에 걸쳐서 회장을 역임했던 엄신형 목사는 공개적으로 자신이 당선되면 10억을 한기총 기금으로 내겠다고 하고 당선이 된 적이 있다. 이러한 공개적인 금권선거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에서 통했다는 사실이 놀랍고 실망스럽지만 이 정도의 재력은 돼야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있다는 사실에 더 절망하게 된다. 도대체 목회자가 무슨 능력으로 10억을 공개적으로 내 놓을 수 있는지 일반인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가 쓴 선거비용까지 합치면, 그것도 두 번에 걸친 선거과정에서 쓴 비용을 생각하면 도대체 그 분이 동원한 현찰은 어느 정도일지 상상이 안 간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분명 한기총 내에서는 선거과정에서 돈 문제가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누가 어떻게'라는 사실까지는 적시할 수 없지만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 그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교회는 신앙적 양심 앞에 바로 서야한다. 그동안 알고도 속았고, 짐작을 하면서도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에 말하지 못했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돈을 주었다는 사람도 있고, 받았다는 사람도 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회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답을 주어야만 하는 막다른 골목에 갇힌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이 문제를 넘어간다면 한국교회는 양심에 화인 맞은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이전에는 이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했고, 욕을 해 댈 수 있었다. 왜냐하면 아직 드러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범죄의 사실이 드러나고, 명명백백히 잘못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이것은 손가락질 하고, 욕만 해댄다고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 그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이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 정죄해야한다. 이것은 잘못이라고, 당신들은 더 이상 한국교회를 대표해서는 안 된다고 바르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야기해야 한다. 특히 금번 기회에는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양심 있는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다. 하나의 큰 물줄기를 만들었고 한국교회에 양심이 있음을 바르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한국교회의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이 비양심적인 단체가 한국교회의 대표가 아니라고, 한국교회의 대안이 아니라고 해야 한다. 이로써 한국교회의 도덕이 그래도 살아 있음을 만천하에 알려야한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양심의 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도덕의 기준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돈이 교회를 지배하고 권력이 교회를 유린한다고 해도 그것을 교회니까 별 수 없는 것이라고 포기하고 말 것이다. 이러한 포기는 결국 개인의 도덕도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주의 몸된 교회가 도덕을 포기한 곳에서 개인이 도덕을 지키기를 바란다는 것조차도 어불성설이다. 거룩하다고 하는 성직자들이 얼마의 돈으로 권력을 사고, 자리를 얻어갖는 상황에서 성도들보고 거룩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더 큰 걱정은 매년 반복되는 교단의 선거이다. 이렇게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소리 내고 저항하지 못한다면 각 교단에서 벌어지는 선거범죄가 사라질 수 있을까? 드러난 것도 정죄하지 못하는 도덕적으로 무능한 집단을 보며 음성적인 범죄를 만들어가는 이들이 두려움을 가질까? 이미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에게 이러한 인간들의 지적마저 없다면 그 어떤 두려움이 있겠는가? 아마 이제는 숨기려고도 들지 않을지 모른다. 남들 다하는 일인데, 얼마를 들여야 한기총 회장이 되고, 교단장이 되는지 다 아는 처지에 뭐 이 정도 일 가지고 이야기하냐고 떠들어 댈지 모를 일이다. 우리가 도덕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나면 결국 이렇게 무기력하게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현재 우리 가운데 한기총 해체가 나오는 것은 아직 한국교회가 죽지 않았음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다.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돌을 들어야하는 것이 결코 나를 돌아볼 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주의 몸된 교회를 바라볼 때 피할 수 없는 도덕적 결단이다. 한기총은 이제 한국교회의 대표성을 잃어버렸다. 더군다나 조직의 비대함으로 인해서 성도들과는 분리된 그들의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항상 들어야 하는 그 이름들과 자신의 이익을 챙겨가지겠다는 사람들로 한기총의 조직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1

년에 한 번씩 회장 선거 때가 되면 돈으로 명예를 사겠다는 사람들을 부추겨서 그 돈을 나누어 먹는 비도덕적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면서도 한국교회의 대표성을 주장한다면 그들은 확실히 양심에 화인을 맞은 것이다. 또한 그들을 용납한다면, 우리 역시 양심에 화인을 맞은 것이다.

현재 한국교회에서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교회갱신을위한목회자협의회의 기도회와 전국 각지에서 청년들의 기도회가 줄을 잇고 있다. 도대체 그들이 무슨 죄가 있는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사건의 당사자들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없다. 아니 회개의 당사자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대통령을 무릎 꿇여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이제 한기총은 그들의 쏟는 눈물에 응답해야할 때이다.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무릎을 꿇어야할 때다.

>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네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네게 내릴지라"(에스겔 5:7~9)

※ 기독교연합신문에 실린 칼럼에 기초한 글입니다.

교회개혁적 측면에서 : 한기총, 왜 리모델링이 아닌 해체인가? (remodeling)

정 운 형 | 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장

한기총 사태, 감리교 감독회장 사태의 재현?

지난 3월 28일 길자연 목사를 상대로, 이광선 목사 등이 낸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3월 30일, 길목측은 법원에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앞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이렇다. 대표회장 직무대행에 의해 총회가 속회되면 양측 모두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실력행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더해 가처분 판결에 대한 본안소송까지 이어진다면,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감리교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감리교 감독회장 사태는, 한국교회와 사회 앞에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치부를 드러낸 매우 수치스러운 사건이었다. 필자는 이번 한기총 사건이 감리교사태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해법으로, 한기총의 해체가 가장 좋은 길이라 생각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금권 선거 문제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우선, 이번 금권선거 파문은 이전에 있었던 어떤 금권선거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다. 이전에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나, 교단장 선거에서도 금권 선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한기총뿐 아니라 각 교단장 선거에서의 금품 살포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금권 선거에 관한 양심선언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전례 없이 돈 선거에 대한 모든 증언(증거)들이 확보되었고, 그 액수 또한 어마어마하다. 길자연 목사로부터 돈을 받아 나눠준 사람, 돈을 돌린 사람, 돈을 받은 사람, 거기에 더해 직전 회장 이광선 목사 역시, 기자회견을 '나도 그랬다.'고 고백했다. 소위 '한국교회의 대표회장'을 세우는 선거에서 위용을 발휘한 맘몬(돈)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반성도 없고 책임지는 이도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부정하고 불법한 행동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당사자인 길자연 목사는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기독교 지도자라는 이가 일반 사회의 윤리나 상식으로도 용납하기 힘든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길자연 목사 뿐 아니다. 자칭 '한기총 개혁을 위한 범대위'라는 이광선 목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본인이 이런 '돈 선거'를 했음을 자백했으면서도 그저 '개혁을 위했다'는 말잔치만 벌일 뿐,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또한, 김화경 목사는 '길자연 목사가 대표회장 본선에서, 거의 모든 실행위원들에게 최소 5백만 원 이상씩, 10억 원을 뿌렸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상대방을 흠집 내기 위한 '폭로'만 계

속 될 뿐이지, 누구도 돈을 받은 것에 대해 진정으로 '회개'하는 이는 없다. 반성 없이 계속되는 진흙탕 싸움은, 한기총이 자정하려는 의지도, 자정할 능력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리모델링(remodeling)이 아니라 해체해야 하는 이유

혹자는, 왜 리모델링(remodeling)이 아닌 해체여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한기총은 한국교회의 암세포이다. 만약 이러한 심각한 한기총의 부패상에 대해 대충대충 묵인하며, 덮고 지나간다면 앞으로 한국교회에는 회생의 소망이 없다. 그저 해당자 몇 사람을 징계하거나 사퇴하는 것으로는, 암덩이를 그대로 두고 키우는 꼴이 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해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 한기총을 '반드시' 해체해야만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구조적인 문제

한기총의 돈 선거 문제는 그저 한 개인의 문제만으로 봐선 안 된다. 만약 이번 사태가 진정이 되어서, 새로운 대표회장을 선출하게 된다면 어떨까? 역시 이런 돈 선거는 재현될 것이다. 한기총이 선거에서 뿐 아니라, 돈을 많이 쓰는 이가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

2009년 한기총의 본부 결산서에 따르면, 가입 교단 및 단체 회비는 본부 총 예산(12억9776만원)의 44.1%인 5억7244만원에 불과했다. 여기에 별도 항목(한기총 20주년 관련 행사 경비 등) 3억3632만원을 예산에 포함하면 재정 구조는 더 취약해진다. 전체 예산 중 교단 및 단체 회비는 고작 28.5%에 불과하다. 나머지 부족한 재정은 대형교회가 메운다. 2010년을 보면,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1억1600만원(2009년 4억3020만원, 2008년 3억1000만원)으로 가장 큰 재정 후원자이다. 그 다음으로 신일교회 이광선 목사(당시 대표회장) 9334만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5100만원, 할렐루야교회 김상복 목사 3000만원,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 1000만 원 등이다. 그 외 돈 많은 장로들과 정치적 야심이 있는 목사들의 후원금으로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남오성 국장, <밖에서 본 한기총, 안에서 본 한기총>)

이 사실은 한국교회(혹은 교단)의 대표라고 하는 한기총의 이름이 얼마나 허명(虛名)이며, 이 조직이 '큰 돈'에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 대표회장이었던 엄신형 목사가 대표회장 후보 당시 '한기총에 10억 원을 내겠다'고 공표하고 대표회장에 2년 연속 당선된 사례가 그 전형이다. 경상대 백종국 교수에 따르면, 이는 '조직의 대표직을 돈으로 사고파는 전근대적인 매관매직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기총이 존재하는 한, 이러한 매관매직과 돈 선거 추문은 계속될 것이며, 이는 한국교회의 전체 건강성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해체 요구는 오랜 개혁운동의 결론이다.

본 토론회를 주최한 <한기총 해체를 위한 기독인 네트워크>는 최근 갑자기 조직된 단체가 아니다. 우리는 수년 전부터, 한기총의 반기독교적 행보에 대해 개혁을 요구해 왔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한기총 개혁을 위한 기독인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왔다. 한국교회가 한기총의 대표성을 인정하느냐의 여부와는 별개로, 가장 많은 교단과 단체가 가입되어 있고 언론의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한기총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것을 기대하며 그들의 자성과 개혁을 요구하였다. 또한, 지난 2009년 6월, 교회개혁실천연대의 공동대표단은 한기총을 방문하여 한기총의 반개혁적 행보에 관하여 항

의하였고,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얻은 결론은 한기총이 더 이상 개혁이 불가능하며, 해체가 답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한기총은 불필요악!

수년간 교회 문제 상담을 해온 필자는 한기총뿐 아니라 각 교단이 가지고 있는 폐해나, 불의함에 대해 통감하고 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하는 공적 기능(예컨대 치리 등)은 현저하게 약화 된 반면, 같은 목회자끼리의 '동업자 의식'만이 팽배하여 목사들의 이익을 지키기에만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수십 차례 목격하였다. 현재 한국교회 구조 안에서 교단은 필요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기총은 다르다. 한기총은 필요악이 아닌 '불필요악'이다. 그저 각 교단 총회장 출신들의 정치적 욕망을 풀어주는 정치의 장일뿐이다. 한국교회에 전혀 필요치 않은 조직이 폐만 끼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조직을 더 이상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

한기총 해체 운동이 수많은 성도들의 공감을 얻고 있으며, 운동의 성과가 드러나고 있음을 본다. 부디 한기총의 해체와 더불어 한국교회 안에 팽배해 있는, 맘몬이라고 하는 우상의 해체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사회선교적 측면에서 : 한기총 해체와 그 너머를 향해...

김 형 국 | 나들목교회 대표목사, 신학박사

한국 교회의 대 사회적 신뢰도는 지난 사반세기 동안 끊임없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종교에 대한 신뢰도, 종교의 이탈률, 각 종교의 성직자에 대한 신뢰도 등등 모든 통계조사에서 개신교는 바닥을 치고 있다. 이와 함께 하루가 멀다 하고, 교계에서 각종 비리와 의혹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총체적 난국의 원인은 여러 가지이겠지만, 근본적인 갱신이 필요한 시점을 이미 놓치고 있다는 위기감이 교계 전반에 확산 되고 있다. 이즈음에 그 동안 지속적으로 여론의 눈총을 받아왔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의 회장 선거에서 드러난 금권 선거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성을 노정하기에 이르렀다. 한기총이 지역교회의 목회와 선교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일고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한기총이 지역교회와 복음전도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

무엇보다도, 한기총이 과연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 참여단체와 참여인사들, 그리고 그 재정 규모 등으로 보아서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것 같이 보이고, 또한 최근 들어서는 중요한 시점마다 목소리를 높임으로서 한국 기독교를 대표한다는 대중적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한기총이 한국 교회를 대표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여럿 있다. 그 중 참여 단체가 내는 회비는 사분의 일 정도이고, 나머지는 대형교회와 일부 목사와 재력가들에 의해서 충당되는 현상이 그 하나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사회적 이슈에 대한 한기총의 성명이 각 교회와 노회, 그리고 교단에서 논의 과정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다른 이유이다. 교회가 탈정치적일 수 없고, 때로 기독교회의 입장이 정치적 입장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각 교회와 교단에서의 아무런 논의와 수렴 과정 없이 일부 목사들에 의해서 작성되는 성명은 한국 교회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기총은 한기총이 한국 교회 전체를 대변하는듯한 인상을 일반 대중에게 주어, 한국 교회의 대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대표성을 실제로 갖지 않은 한기총이 보이는 비윤리성, 정치성, 그리고 이로 말미암는 사회 통합의 역기능 등은 각 지역교회의 목회와 선교에 지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목회적인 면에서 대다수 의식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비판적 안목을 가진 그리스도인들과 젊은 세대가 기독교를 떠나 무교가 되거나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비율이 다른 어떤 종교보다 높은 현상은 이와 무관치 않다. 한기총이 배태하는 부정적 이미지와 지역교회의 미성숙과 비리가 결합되어 기독교의 종교 이탈을 최악의 수준으로 만들고 있다고 보아야한다. 또한 한국 교회의 얼굴이며 어른으로 자처

하는 한기총이 보여주는 모습이 기독교의 가르침이며 행함이라면, 적지 않은 교회내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가를 보여주어야 할 교회의 이미지가 한기총으로 대변됨에 따라, 일반 대중이 기독교의 복음에 관심을 갖고 진지한 구도를 하는 일에 지대한 장애를 가져오고 있다. 교회의 대 사회적 활동 역시 순수하게 읽혀지지 않을 위험까지 존재한다. 일반 사회에서조차 자취를 감추고 있는 타락선거가 만연한 모습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메시지는 결국 따르지도, 살아내지도 못할 언어의 유희와 위선자들의 종교적 허식 정도로 일반 사회인에게 전달된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에서 회심과 개종 비율의 지속적 저하에 한기총의 부정적 이미지가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한기총과 같은 개신교를 대표하는 조직의 필요성

한기총은 한국 교회를 엄밀한 의미에서 대표할, 전 교회적 합의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그 자질에 있어서도 심각한 결격 사유를 안고 있다. 이제 한기총이 스스로 근원적인 개혁과 재구성을 하지 못한다면 해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유사대표성" 또는 "과잉대표성"으로 인해 한국 교회에 끼치는 위해를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기총을 대신할 다른 조직체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심각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각 지역교회와 교단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주님을 섬기는 면에서 교제하고 연합하기 위한 교제 차원의 조직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과연 최근 한기총이 보여준 것과 같은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대표적 기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재고하여야 한다.

개신교의 매우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성도 각 개인이 성서를 자신의 상황 속에서 신실하게 해석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여러 사안에 대하여 조금씩 다른 입장의 견해가 개진될 수 있고, 대화와 논쟁의 과정을 통해, 진리에 더 가까이 나가고 또한 그 진리를 더 온전히 따를 수 있다. 그런데 한기총과 같은 대표 기구가 생겨나, 각 교회에서의 적절하고 충분한 논의도 없이 한국 교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개신교가 가지는 본질적 장점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정치적 권력을 통해 이익을 보려는 속셈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에 역행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러한 조직이 철저하게 성직자 중심의 조직이 될 때, 개신교의 전통인 만인제사장설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사제 중심과 사제 우월의 사상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함께 공동의 입장을 개진하여야 할 때가 있다면, 그 때마다 사안별로 동의하는 교단과 교회가 그런 입장을 표현하여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3. 한기총 해체 상황의 책임자와 보다 본질적 갱신의 필요성

한기총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참으로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찌되었건 한국의 중요한 교단과 단체들이 가입되어 있는 이 단체가 이제 더 이상 자체 정화와 개혁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해체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요청인데, 이는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상황의 책임을 단지 몇몇의 교계 지도자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이번에 드러난 금권 선거의 규모가 너무 광범위하다. 뿐만 아니라, 이런 한기총의 모습이 각 교단에는 없다고 말하기 힘든 점이 우리를 또 한번 곤혹스럽게 한다. 더 나아가 각 교단의 노회에서는 어떨까? 아니, 그 노회에 속해 있는 지역교회에서는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슬프고도 고통스럽게 우리는 공공연히 벌어

지고 있는 교회 내의 권력의 비정상적 집중과 재정의 불투명한 사용, 그리고 개인 윤리적 차원에서의 일탈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가난한 자는 안수집사도 장로도 되기 어려운 우리 교회 내부적 상황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간과하지는 않았는지. 성도들은 교역자들이나 당회의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 아래, 기도가 동반된 당연한 문제제기와 사랑을 동반한 감시의 의무를 너무 오랫동안 도외시했다. 부교역자들은 담임 목사의 목회철학에 순종하여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한다는 미명 하에 그들이 따르는 주님의 뜻을 거슬렀다. 불행히도, 그리고 가슴 깊은 아픔으로, 한국 교회 속에 있는 우리 모두의 "침묵과 무관심의 카르텔"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작금에 벌어진 한기총의 금권선거의 문제는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한국 교회가 이번의 이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기회를 통하여 스스로 각성하여 깨어나지 못한다면, 한기총 해체는 사실 또 다른 유사 한기총을 만들어내고 말 것이다. 단지 한기총 해체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갱신이 필요하다. 교회가 건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결코 목회자나 교회 제직(諸職)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의 의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예수를 본받으며 따라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소극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책임성 있는 존재로 상시적 감사와 건설적 비판의 역할을 하며, 적극적으로는 교회와 사회에서 예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철저한 헌신을 해야 한다.

이에, 이번 한기총 사태를 바라보면서 누구에겐가 돌을 던지는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성도들이 가칭 "예수를 따르는 교회를 위한 지킴이 서약"(줄여서, "교회 지킴이 서약")을 하는 운동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주님의 교회의 실제 지체들인 우리 성도들이 일어날 때, 한국 교회가 뿌리로부터 갱신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 이제는 교계의 명망가들에 의해서 이끌어지던 갱신이 아닌, 모든 성도들이 깨어나는 갱신이 필요한 때이다. 각 지역교회에서, 각 노회와 교단에서 "교회 지킴이"들이 겸손과 사랑으로 일어나야 한다. 그것만이 한기총 해체에 이어지는 의미있는 열매를 가져올 것이다.

주여! 한국 교회를 도우소서. "교회 지킴이"들을 일으키소서!

■ 한기총 사태에 대한 대책 질의서

우리 <한기총 개혁을 위한 기독인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의 최근 금권선거 파문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간 일말의 기대를 품고 한기총의 자체적인 개혁을 요망해왔으나, 금번 사태 및 과거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통해 한기총에 과연 자정능력이 있는지 심각하게 의심하게 됐습니다. 이에 우리의 우려를 담아 아래와 같이 질의를 보내드리며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1. 한기총은 이번 금권 선거 파문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난 수년간의 대표회장 선거가 금권 타락 선거였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한기총의 책임 있는 행동은 보이지 않습니다. 돈 봉투 선거는 사실입니까? 진상조사는 이루어졌습니까? 돈 받고 투표한 자들과 돈 주고 당선된 자들에 대해 어떤 징계 조치가 있을 예정입니까?

2. 한기총이 일선 교회들에 해를 끼치는 현실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 지역교회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한기총을 목회와 신앙의 장애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한기총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는 말이 들립니다. 한기총으로 인해 야기된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들은 한국 개신교의 사회적 신뢰도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기총은 이단에 대하여 확고한 입장을 표하지 못했습니다. 회원교단들이 이미 이단으로 결정 내린 집단들을 옹호하는 곳이 바로 한기총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어떤 쇄신 계획이 있습니까?

3. 한기총은 연합기구로서의 정체성 위기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 한국의 많은 교회들과 교인들은 한기총이라는 연합기구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의심합니다. 왜냐면 한기총은 순수 복음단체를 표방하며 출범했으나 실상은 특정 정치이념을 추구하는 단체였으며, 권력에 눈먼 목회자들의 싸움터였고, 한국교회의 고질적 문제인 맘몬주의를 억제하기는커녕 촉진시켰기 때문입니다. 한기총은 이런 잘못을 인정합니까? 이에 대해 어떤 개선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에 본 네트워크는 한기총의 답변을 듣기 원합니다. 본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2011년 3월 11일 금요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까지 성의 있는 답변이 없다면, 우리는 뜻을 같이 하는 개인과 교회와 단체들과 함께 한기총 해체를 위한 탈퇴 운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기총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2011년 3월 3일

한기총 개혁을 위한 기독인 네트워크

공의정치실천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개혁지원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생명평화연대, 정의평화를위한기독인연대,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평화누리, 희년함께

■ 한기총 해체 촉구 성명서 "한기총 해체를 촉구한다"

우리는 지난 3월 3일, <한기총 개혁을 위한 기독인 네트워크> 명의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에게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를 통해 한기총은 이번 금권 선거 파문에 대해, 일선 교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현실에 대해, 연합기구로서의 정체성 위기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가를 물었다. 이에 대한 대답을 3월 11일까지 보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만일 답변이 없으면 한기총 해체를 위한 탈퇴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결국 위 시한까지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하였음에 유감을 표한다.

이에 우리는 한기총 해체 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우리는 명칭을 <한기총 해체를 위한 기독인 네트워크>로 전환하고, 앞으로 한기총 해체 운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한기총이 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확인했다. 이제 남은 유일한 대안으로서, 한기총이 역사적 수명을 다하였음을 인정하고 해체하기를 촉구한다.

1. 한기총은 한국교회 대표 연합기구가 아니다.

우리는 한기총이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연합기구로서 자격 없음을 확인한다. 그간 한기총은 한국교회 구성원들로부터 위임 받은 적 없는 대표성을 무단 발휘해왔다. 또한 순수 복음단체를 표방하며 출범했으나, 그 동안 기독교를 빙자하여 편향되고 폐쇄적인 특정 정치이념만을 추구했다. 뿐만 아니라, 권력욕에 눈먼 목사들의 쟁탈의 장에 불과했고, 한국교회의 고질적 문제인 맘몬주의를 촉진시켰다. 이미 양심 있는 대다수 한국교회 구성원들은 한기총이 자신을 대표한다고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치스러워 한다.

2. 한기총이 해체돼야 한국교회가 산다.

우리는 한기총 해체가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임을 안다. 현재 한기총은 일선 지역교회 목회활동의 장애물에 불과하다. 한기총의 추태는 한국 개신교의 사회적 신뢰도를 악화시키는 주범이었고, 이로 인해 전도의 문은 더욱 막혀갔다. 뿐만 아니라 한기총은 회원 교단들이 이미 이단으로 결정 내린 집단들을 옹호하여, 복음의 정체성을 훼손시켰다. 또한 이번 금권타락선거 사태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함으로써 자정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3. 한기총 없어도 교회연합운동 지장 없다.

우리는 한기총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한국교회 연합운동에 차질이 없을 것을 확신한다. 한기총이 탄생하기 전, 교회연합사업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한기총 해체 후, 교회들이 힘을 모아 함께 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이미 존재하는 여러 기관들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다. 만일 필요하다면, 한국교회 구성원들의 뜻이 민주적으로 반영되고, 선거 과정에 어떠한 부정도 개입되지 않을 투명한 연합기구를 구성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머리를 모을 수 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한기총 해체 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자발적인 해체 운동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폭 넓게 진행 중임을 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힘을 모을 것이다. 또한 각 노회/지방회가 한기총 탈퇴 청원을 결의할 것을, 그리고 총회는 이를 받아들여 탈퇴를 결의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한기총은 자신의 해체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는 길임을 깨닫고, 결행하기를 촉구한다.

2011년 3월 16일

한기총 해체를 위한 기독인 네트워크

공의정치실천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개혁지원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생명평화연대, 정의평화를위한기독인연대,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평화누리, 희년함께(가나다순, 총 10개 단체)

■ 한기총 사태 경과

[2010년]

9.30. 예장합동 총회, 길자연 목사(이하 길자연)를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로 결정.
12.21. 길자연, 한기총 17대 대표회장 당선.

[2011년]

1.20. 한기총 제22회 총회 개최. "한기총 개혁을 위한 비상대책 위원회"(이하 비대위), 길자연 당선 인준 거부. 이광선 목사(이하 이광선), 정회선언하고 회의장 퇴장. 회의장 잔류 실행위원들, 동의 얻지 않았으므로 정회선언 무효 주장. 공동회장과 명예회장 16명 긴급회의 개최, 조경대 목사를 임시의장으로 선임해 회의 진행. 이광선, 서기를 통해 1월 27일 오후 2시에 속회 의사를 실행위원들에게 전달. 실행위원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총회 속회, 길자연 대표회장 인준안 처리.
1.27. 이광선측 실행위원들, 제22회 정기총회 속회. 길자연 인준 무효 결의. 임시 대표회장: 이광선.
1.31. 길자연, 한기총 17대 대표회장 취임.
2.09. 이광선, 금권 선거 전력 고백. "2009년 한기총 대표회장에 출마해 돈 선거 했다"
2.10. 강주성 목사, 금권 선거 양심선언. "작년 합동 총회 중, 길자연 측 홍재철에게 100만원 받았다. 금품 수수자 42명 더 있다."
2.15. 김화경 목사, 금품 선거 양심선언. "대표회장 선거당일, 길자연측 홍재철에게 50만원 받았다."
2.17.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논란 관련 담화문 발표. "길자연 당선 부인은 불법"
2.22. 손봉호 교수, 시사저널 인터뷰. "한기총 해체 운동에 나서겠다"
2.18. 비대위, 길자연 대표회장직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2.25. 한기총 임원회, 비대위 29명 징계 안건 통과.
2.28. 미래교회포럼(예장고신 목회자모임), 성명서 발표. "한기총 해체 촉구"
2.28. Daum 아고라에 "한기총 해체를 위한 개신교인 서명운동" 시작.
3.02. 한기총 개혁을 위한 기독인 네트워크(네트워크), 한기총에 질의서 발송. 3월 11일까지 응답 없으면 해체운동 시작 예고.
3.04. 한기총 실행위원회, 비대위 29명 징계 유보. 길자연의 처분에 맡기기로.
3.04. 김경재 교수, 베리타스 인터뷰. "손봉호 교수의 한기총 해체 주장에 적극 찬성"
3.09. 비대위, '한국교회와 한기총개혁을 위한 범대책위원회'(범대위)로 명칭변경. 조직 확대.
3.10. 최요한 목사, 금권 선거 폭로. "작년 합동 총회 중, 길자연에게 받은 돈봉투를 목사 4~50명에게 건넸다."
3.11. 한기총, 네트워크 질의서 시한까지 무응답
3.11. "한기총 해체를 촉구하는 페이스북 사용자 연대" 출범.
3.14. 서울중앙지방법원,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판결. "한기총이 3월 15일 개최하기로 한 임시총회에서 징계 및 정관 개정을 결의해도 그 효력을 정지한다."
3.14. 네트워크, 한기총 해체 운동 시작. 명칭변경: "한기총 해체를 위한 기독인 네트워크".
3.16. 김화경 목사, 금권 선거 폭로 녹취록 공개 "길자연, 본선에서 10억 원 뿌렸다"
3.16. 네트워크, 한기총 해체 촉구 기자회견 개최. 해체 촉구 서한 전달.
3.18. 이동원 목사, 트위터, "한기총 해체 운동 당연"
3.21. 네트워크, 한기총 소속 법률고문 및 단체에게 탈퇴 요청 공문 발송.
3.21. 한기총 법률고문 2인 탈퇴. 사직서 제출.
3.25. 이만신 목사, 특별기도회 설교 중. "엄신형 이광선 길자연 목사 금권 선거 했다"
3.28. 법원, 길자연 대표회장직 직무정지. "대표회장 인준 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직무대행: 김용호변호사.
3.30. 길자연, 직무정지 취소 신청을 법원에 제출. "대표회장 인준 절차는 적법."
3.31. 월드비전, 한기총 탈퇴 공식 발표.
4.01. 네트워크, 전국 순회 토론회 "한기총, 왜 해체되어야 하는가" 서울 개최 (4/4 부산, 4/5 대구)

■ 아고라·페이스북·트위터 서명 참여자 의견 모음

아고라 Best 10

-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먼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부끄럽습니다. 해체 동의합니다!
- 하나님께서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는데 돈으로 세워진 회장에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곳에서 그러시면 안 되죠!!!
- 한기총이 해체되어야 교회는 삽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를 대표 할 수 없습니다.
- 종교인은 사회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지탄을 받는 한기총은 일단 해체되어야 합니다.
- 한기총이 저런 모습을 보이니 천만 기독교인들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해체 촉구합니다.
- 참 부끄럽습니다. 한기총의 모습을 보며 저 자신의 신앙의 모습도 보는 듯 하는데 많이 회개하고 바꾸어 가야겠네요.
- 한기총이 없다고 한국교회가 사라지거나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서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 모두의 갱생과 개혁이 필요합니다.
- 서명합니다. 십자가는 명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닙니다. '세상 죄 짐'입니다.
-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예수님의 말씀...더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해체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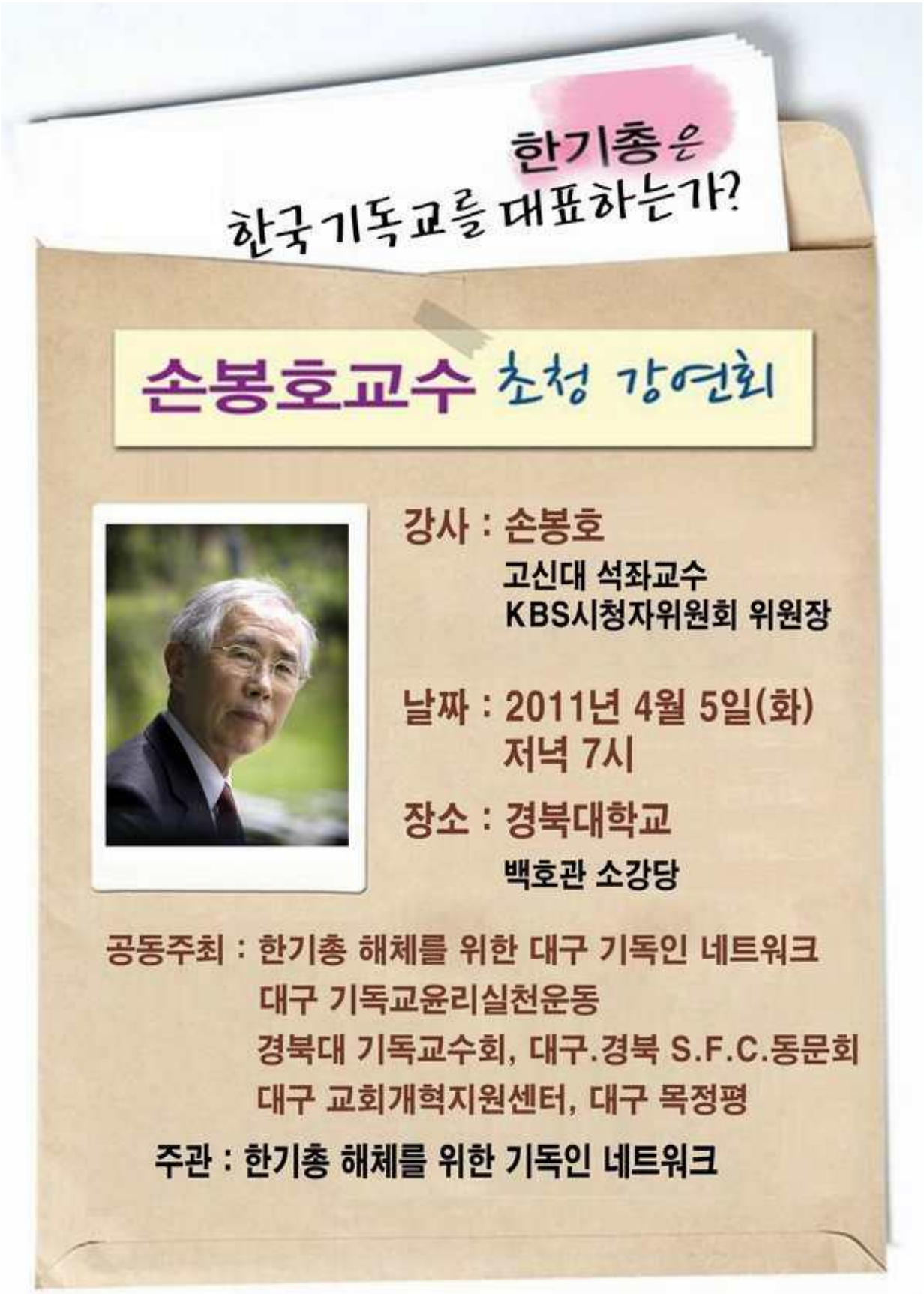
페이스북 Best 10

- 월드비전 탈퇴, 만우절 앞당긴 거 아니죠? 기분 좋습니다.
- 강도의 소굴인 한기총은 스스로 무너져야 한다.
- 세속 사회에서는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적이 없어도 구조조정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철밥통 한기총입니다. 그네들이 신봉하는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따라 솎아내야 합니다.
- 이 사순절이 끝나고 고난주간이 되면 한기총으로 표현되는 한국교회 교단주의, 패권주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한국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갈망합니다.
- 오늘 아침에도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동참합니다.
- 한기총 해체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서명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낮아짐으로 돌아가야 부정의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젠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변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기독인들부터 먼저 변합시다. 실천합시다. 이보다 더 쉬운 일은 없을 겁니다.
- 사실상 기독교의 대표성을 상실한 한기총, 구지 유지될 필요 있나요?
- 조속히 조용히 마무리 해주시길. 그러나 확실히.
- 한기총이 해체되어야 교회가 개혁됩니다. 고름은 절대로 살이 되지 않으니 도려내고 짜내야 한다.

트위터 Best 10

- 부끄러운 한기총을 거부합니다.
- 한기총은 빨리 해체돼야~
- 한국 개신교 자정 능력 시험 기회!
-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심정으로 이 운동에 동참합니다.
- 2800% 동의합니다.
- 한기총 해체운동 들어가셨다구요. 으핫핫핫!! 환영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전적인 지지의 마음을 담아 공작새의 전매특허인 구애의 춤을 추겠어요!!!
- 우릴 부끄럽게 하는 한기총 해체 당연!
- 가능성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
-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왜 무너뜨리셨는지 세길 필요가 있을 듯..
- 으악 수업 째고라도 가보고 싶다. ㅜㅜ

■ 부산(4/4), 대구(4/5) 토론회 안내



부산 Christian Ethics Movement 기실

한기총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손봉호교수 초청 강연회

강사 :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KBS시청자위원회 위원장

날짜 : 2011년 4월 4일 저녁 7시 30분

장소 : 부산중앙교회 소극장

051-624-4554
금련산지하철역 6번출구

주관 : 부산기윤실

051-462-1558
http://cafe.daum.net/bcem

주최 : 한기총 해체를 위한 기독인 네트워크

한기총 해체운동

[블로그]
http://cckout.tistory.com

[트위터]
http://twitter.com/cckout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cckout

한기총 해체 촉구 서명 참여하기

[아고라]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04373

Christian Ethics Movement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www.cemk.org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01호 / Tel_ 02-794-6200 Fax_ 02-790-8585 / E-mail_ cemk@hanmail.net

* 본 자료집의 내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을 생각하여 재생종이(중질만화지)를 사용했습니다. Recycled Paper
* 본 자료집은 기윤실 홈페이지 자료실 또는 한기총 해체운동 블로그에서 파일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